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인기가수들 총출동 내달 10일 합동공연

백영, 주얼리, 소녀시대, MC 몽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합동 공연이 열린다.

(대한공연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는 10월10일 오후 6시 30분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제15회 사랑한다 대한민국! 2009 드림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무대에는 이밖에도 슈퍼주니어, 2PM, 샤이니, 투에니원, 포미닛 등 인기 가수 15팀이 출연한다. 4월 출연을 약속했던 동방신기는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출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티켓은 10일 오후 8시부터 G마켓(www.gmarket.co.kr)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 판매된다.



“벌써 40대 중반인데
20대 발레리나 역이라니
민망하면서도 즐거워”



‘공주가 돌아왔다’의 출연자들. 왼쪽부터 이재황, 황신혜, 오연수, 탁재훈.

5년만에... 돌아온 공주

황신혜

5년 만에 TV 드라마에 복귀하는 황신혜(46)는 촬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웨라톤 위커피 호텔에서 열린 KBS 2TV 드라마 ‘공주가 돌아왔다’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며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 대본도 정말 재미있고 같이 촬영하는 분들도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만큼 어려움도 많다. 그는 “NG는 아마 내가 가장 많이 낼 것”이라며 “상대 연기자들은 능청스럽게 연기하는데 저 혼자 웃음이 터져서 몇 번씩 찍는 장면도 많았다”고 말했다.

유명 발레리나로 등장하는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토슈즈를 신고 발레하는 장면이 그에게 고역이다.

“발레 연기를 잘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내조차 내기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발가락이 아파서 토슈즈를 신고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집에서는 딸에게 ‘엄마가 그 나이에 어떻게 발레 연기를 하느냐’면서 다칠 수 있으니 그만두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그는 “촬영 후 화면을 보니 그래도 조금 흥내는 낸 것 같다”며 아쉬운 가운데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주 등장하는 회상 장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40대 나이에 20대 초반 역할을 해야 하니 자연 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기하기가 민망하고 창피해서 무척 힘들다”면서도 “원래 이 작품이 밝고 유쾌한 드라마다 보니 그런 회상 장면도 재미있게 촬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컴퓨터 미인’으로 추앙을 받은 그는 ‘돌아온 공주’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소주에 족발을 즐기고, 식사를 할 때도 격식을 따지는 걸 귀찮아하는 ‘하녀’ 스타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우아하게 와인을 즐길 줄도 모르고 회식 하면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편이에요. 실제로 술자리도 주도해서 술안 마시고 ‘빠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죠.” 이번 ‘공주가 돌아왔다’에서도 ‘하녀’로 출발해 ‘골드미스’로 변신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신혜는 “사회적 성공을 이룬 골드미스와 전업주부가 서로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미묘한 갈등을 드러내는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KBS 2TV의 새 월화드라마로 14일 첫선을 보이는 ‘공주가 돌아왔다’는 친구에게 첫사랑을 빼앗기고 유학길에 올랐다가 발레리나로 화려하게 돌아온 ‘골드미스’ 장공심(황신혜 분)과 발레와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던 왕년의 ‘엄친아’였으나 순간의 실수로 17년 동안 아줌마 인생을 산 차도경(오연수)의 이야기를 그린다.

두 주인공이 발레리나로 등장하는 이 드라마는 또 국내 최초로 대형 발레단 공연을 작품 속에 녹여 재미있는 볼거리도 제공한다.



7년만에... 돌아온 입담

이성미

“캐나다에선 평범한 아줌마로 생활
많이 점잖아졌죠, 어느덧 오십인데”



“잘 다녀왔습니다. 마흔셋에 갔는데 오십이 돼서 돌아왔네요.”

개그우먼 이성미(50)가 7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일 돌아왔다.

“절대 동안”답게 그는 여전히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무 살짜리 아들을 둔 중년으로,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실새 없이 조잘대던 명랑한 작은 새의 모습은 간데없고,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다.

“많이 점잖아졌어요. (웃음) 이제 오십이잖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십에 출렁거릴 수는 없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나니 조금만 것도 없었고, 저를 찾는 분들도 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이에 맞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활발하게 활동하던 2002년 그가 세 자녀와 함께 캐나다행을 택했을 때 막내는 겨우 14개월이었다.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7년이 7개월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엄마로서 아이들과 보낼 시간도 필요했고요. 그저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가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는 돌아오기 전까지 2년간 캐나다를 찾는 한국인들의 현지 정착을 돕는 서비스 사업을 했다.

“돈을 벌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캐나다에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가서 한국 사람은 믿지 마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참 섭섭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가서

몇 년을 아이들만 보다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실마 사람들이 이 날 사기꾼으로 볼까 싶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뜯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밴쿠버의 코키틀람에 동지를 틀었던 그는 철저히 어머니로서, 평범한 아줌마로서 생활했다.

“새벽 기도도 하루 일을 시작하면 아이들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과 여기저기 차로 태워다 주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학창시절 점심때 엄마들이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학교로 갖다주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해줬어요.”

그는 현재 너무 낯설다고 털어놓았다.

“7년을 떠나있었는데 돌아오니 제가 14년을 후퇴한 듯한 느낌이에요. 시골에서 상경한 이방인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싶기도 한데, 방송 일을 다시 한다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동우꽃돌침대 추석맞이 효도 대축제

전지파 제거 두겹 사물 / 전지파자기함 0cm기술 돌침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 5개국 특허 획득 및 세계47개국 5차례 노벨수상

축제기간

2009년 9월 12일 ~ 2009년 9월 21일까지

모텔용 호텔스(퀵)/고급형
특가: 2,940,000
1억 원대 가격 대비 1/3

사양
1. 매트리스: 10cm
2. 300%강화 스프링: 1000여개 포함

동우에네스텍(주) 방우교역 호남무로전화 060-314-6864 / 본사(서울)전화 02-314-6864 www.enebest.com

효도 대축제 행사점 : 광주 롯데백화점 : 062-221-1762 광주 현대백화점 : 062-510-7853